

近代 이후 長城 地域의 漢文學 活動에 관한 고찰*

-詩社를 중심으로-

장선희**1)

<차례>

- 1. 서론
- 2. 長城 地域 概觀
 - 2.1 地理的 背景
 - 2.2 歷史的 背景
- 3. 長城 地域의 漢文學 活動
 - 3.1 近代 以前 장성 지역의 한문학 활동
 - 3.2 近代 以後 장성 지역의 한문학 활동
- 4. 결 론

1. 서론

본고는 근대 이후 전남의 長城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詩社 活動에 관한 고찰이다. 필자는 우리 문학이 신문학으로 이행되어 가던 근대 교체기 이후의 한문학의 활동과 양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봉건과 근대가 부

딛치던 근대교체기에 우리 문학은 주류를 이루어 오던 한문학과 새롭게 태동하던 근대 국문문학 사이에서 상당 기간 동안 충돌과 공존의 이행 과정을 겪었다. 필자는 이러한 두 문학의 교체기와 그 이후의 한문학의 행방에 대하여 추적해 왔다. 근대 이전의 국문문학이던 시조나 가사가 그 세력은 약화되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한문학 활동 또한 근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교체기의 한문학과 국문문학의 공존 양상과 그 이후의 한문학의 활동 양상을 찾아내어 정리하는 것은 우리 국문학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호남 권역에서 이루어졌던 근대 이후의 한문학의 활동 양상을 각 지역의 시사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리하여 호남의 남서부 지역인 목포¹⁾와 호남의 동부내륙지역인 구례²⁾의 시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연속으로 호남의 서부내륙지역인 장성의 한문학 활동을 시사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작업에서 필자는 근대를 1860년대 이후로 설정하고 1910년을 기준으로 다시 근대 전기(1860-1910)와 후기(1910-1945)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왔다. 그런데 장성 지역의 한문학 활동을 조사한 결과, 근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시사활동들이 주로 조사되었다. 그리하여 시대구분을 근대 이후로 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사활동을 고찰하였다.

2. 長城 地域 概觀

2.1 地理的 背景

* 이 논문은 2008년도 광주보건대학 교내연구비 수혜논문임.
** 보건대학교

1) 장선희, 「목포시사 연구」, 『언어문학』 제 4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12.
2) 장선희, 「매월음사 연구」, 『언어문학』 제 4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1.12.

예전에는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의 남부 지역을 동일문화권으로 묶어 호남이라고 통칭하여 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호남은 전라남·북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굳어지는 듯 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라남·북도의 통칭으로 호남이라는 명칭을 쓰고자 한다. 호남은 노령산맥에 의해 전라남도도와 전라북도가 나뉘어 진다. 전라남도의 북부에 위치해 있는 장성군은 전라남도도와 전라북도를 잇는 호남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장성의 전체적인 지형은 노령산맥이 동서북으로 뻗어 있어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장성은 동쪽으로는 담양군, 서쪽으로는 영광군, 남쪽으로는 광주광역시와 함평군 등 전라남도의 각 지역과 연결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전라북도 정읍과 순창군, 고창군과 각각 접해 있어 전라남도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장성은 백제 때는 고시이현(古尸伊縣), 소비혜현(所非兮縣),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 등으로 불리었고 통일신라 이후에는 감성군(岾城郡), 삼계현(森溪縣), 진원현(珍原縣)으로 불리다가 고려 초에 감성군이 장성군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³⁾ 長城이라는 지명은 이 곳의 지형이 노령산맥으로 ‘긴 성(長城)’처럼 사방으로 에워싸인 소쿠리의 모양이라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⁴⁾ 조선조에는 1655년(효종 6)에 장성도호부가 되었다가 1895년(고종 32)에 全州府 장성군으로 개편되었으며 1896년 전라남도 장성군이 되었다. 2009년 현재 1개 읍과, 10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성은 후백제 무렵부터 광주와 전주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 조선 시대 이후로는 더욱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경제, 행정,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⁵⁾ 근대 이후에도 장성은 국도 1호선과 호남선 철도가 통과하면서 송정~광주~목포 등의 남부지역과 정읍 등의 북부 지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지방 도로들이 통과하는 호남의 중심 지역이다.

2.2 역사적 배경

2.2.1 조선 전기

장성은 호남 유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다. 장성이 호남 유학의 본거지가 된 것은 조선 전기 무렵이다. 조선 개국 이후, 절의를 지키고자, 또는 크고 작은 정쟁에 연루되는 등의 정치적 이유로 이 곳 호남으로 유배를 오거나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호남이 유배지나 落南의 移去地로 선택되는 것은 지리적으로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며, 기후가 좋고 물산이 풍부하여 생활 조건이 양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호남으로 유배되거나 새로운 이거지로 택하여 내려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조를 지키고자 했거나 정쟁에 휘말린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유배자들과 이주자들에 의해 호남의 학문과 문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고 호남 유학과 문학의 특징을 갖게 된다. 호남은 각 지역마다 특징을 지니는 학문과 문학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호남 학문과 문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광주, 나주, 담양(창평), 장성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곳을 한데 묶어 “광·나·장·창”이라고 불렀다.

장성을 대표하는 학자이며 문인으로는 河西 金麟厚(1510-1560)와 蘆沙 奇正鎭(1798-1879)이 있다.⁶⁾

3) 장성군, 『장성군사』, 2001.

4) 황병성, 『향토문화 제1집-장성편』, 창문각, 1998, 15쪽.

5) 김봉곤, 『蘆沙學派의 形成과 活動』,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104쪽.

6) 이중환, 擇里志(長城편) 文鄉 제 14호 長城文化院, 2005.: 그러나 인걸(人傑)은 땅의 영기(靈氣)로 태어나는 것이므로 전라도에는 인걸 또한 적지 않다.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은 광주(光州) 사람이고, 일재(一齋) 이항(李恒)은 부안(扶安) 사람이며,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장성(長成) 사람인데 도학(道學)으로 이름이 높다.

河西 金麟厚(1510-1560)는 본관이蔚山으로 玄祖 穩대에 장성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 하서의 선조들이 이 곳 장성으로 내려온 이유는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 전기의 정쟁으로 인한 落南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서의 인물됨이 출중하였고 후일 문묘에 배향됨으로 인해 하서의 후손들은 하서를 새 과조로 모시고, 하서의 시호를 따서 文正公派를 개창하였다. 그러므로 울산 김씨 문정공파는 하서의 후손들이 된다.

하서는 중종 5년(1510)에 장성 황룡면 맥동리에서 출생하여 명종 15년(1560) 51세에 세상을 떠났다. 5-6세 때에 이미 文字를 이해하고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장성의 신동으로 천하의 문장가가 되리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서는 俚仰亭 宋純(1493-1582)과 訥齋 朴祥(1474-1530), 그리고 당시 호남관찰사로 내려와 있던 慕齋 金安國(1478-1543)과 기묘사화로 화순 동북으로 귀양 와 있던 新齋 崔山斗(1483-1536)에게서 수학하였다.⁷⁾ 그 뒤 성균관에 들어가서는 退溪 李滉(1501-1570)을 비롯하여 花潭 徐敬德(1489-1546) 晦齋 李彥迪(1491-1553) 高峰 奇大升(1527~1572), 蘇齋 盧守愼(1515-1590)등과 함께 강학하면서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학문의 경지를 넓혀갔다. 하서는 31세(1540년) 때에 別試文科에 병과로 등제하였다. 34세 때는 당시 동궁이었던 인종의 設書가 되었고 그 해 하서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옥과의 현감으로 내려온다. 인종이 즉위하자 하서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36세(1545년)때 즉위 1년도 안되어 인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失意에 빠져 모든 벼슬을 사양하고 향리인 장성으로 돌아와 술과 시로 소일하였다. 그러면서 하서는 해마다 인종의 기일이 되면 산중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 통곡하였다. 그 뒤 하서는 전북 순창의 鮎巖村으로 거처를 옮겨 訓蒙齋라는 초당을 짓고 부모를 봉양한다. 또 한편으로는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만년에 하서

는 심신과 생활의 안정을 얻고 학문에 전념하면서 당시의 젊은 학자들이 학문에 진지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몸소 道學의 기풍을 고취하는 데 노력하였다.

하서는 관대한 인품과 학문, 뛰어난 문장으로 많은 사제관계와 교유관계를 맺었으며 호남 학문과 문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서의 문집에는 3백여 명에 가까운 교유인사들이 등장한다. 이는 하서의 교유의 범위와 함께 하서의 위치와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서의 교유관계는 향리에서 사제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호남의 문사들과, 서울로 올라가서 성균관에 들어가 만난 인사들로 이루어졌다. 학문적 교유 및 사우 관계에 있어서 하서는 김안국, 최산두, 박상, 송순 등에게서 학문을 전수받았으며 석천 임억령, 사촌 김윤제, 고봉 기대승, 소쇄원 양산보, 서하당 김성원, 제봉 고경명, 백호 임제, 송강 정철, 사암 박순 등에게 전수하였다. 하서를 중심으로 하여 엮어진 이들 사제관계, 교유관계의 인물들은 광주와 나주, 장성, 담양(창평)을 중심으로 하여 학문과 문학을 만개시켰다.

흔히 하서를 칭할 때 도덕과 의리, 문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 후일 정조는 하서를 도학과 절의, 문장을 모두 갖춘 유일한 사람이라는 평과 함께 문묘에 배향하여 호남에서 유일하게 성균관 文廟에 모셔진 한국 18賢人 중의 하나가 되었다.⁸⁾

하서가 활동하던 16세기는 호남의 학문과 문학의 개화기였다. 그리하여 중종 때는 호남 三傑(新齋 崔山斗, 城隱 柳成春, 橋亭 尹衢), 명종 때는 호남 三高(河西 金麟厚, 鈍菴 安岫, 石川 林億齡)⁹⁾ 명종, 선조 때는 湖南 5賢(河西 金麟厚, 高峰 奇大升, 一齋 李恒, 眉巖 柳希春, 竹川 朴光前)¹⁰⁾

7) 『하서집』 부록 권1, 「家狀」, 3쪽: ..先生初學於新平宋先生純 又出入于新齋崔先生山斗 慕齋金先生安國二先生之門..

8) 正祖: 金文靖 道學之眞正篤實 予之素所尊尙 若言其先行後知 直內方外之工則 實爲我東第一人也 予於金河西別有起慕焉 夫道學也節義也文章也 無一不備者 獨河西日人矣

9) 安邦俊, 『牛山集』: ...文定之世金河西麟厚安鈍菴岫林石川億齡優遊外服 時人謂之湖南三高..

10) 安邦俊, 『隱峯全書』 권4, 竹川 朴光前 行狀.

등이 이름을 날렸고, “호남의 명현과 逸士가 많았는데 종종, 명종 때 이르러 가장 성했다.”거나 ‘國朝 중엽에 호남에 인재가 특히 성했다’¹¹⁾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호남 학문과 문학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종종 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문예의 중흥기를 맞이하던 호남의 학문과 문학은 기묘사화(1519년)와 을사사화(1545년)를 거치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선조 때에 있었던 기축옥사(1589년)로 인하여 또다시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분열 와해된다. 그리하여 호남인의 등용은 다시 막히게 되고 호남의 학문과 문학은 오랫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2.2.2 조선 후기

조선 전기에 한참 흥기하면서 개혁과 진보적인 특징을 보였던 호남 유학은 중기 이후에는 성리학의 허실과 현실적,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실학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호남 실학은 전북 부안으로 이주하여 20여년을 거주하였던 전북 부안의 礪溪 柳馨遠(1622-1673)을 필두로 하여 전남 장흥의 存齋 魏伯珪(1727-1798), 전북 순창의 旅庵 申景濬(1712-1781), 전북 고창의 頤齋 黃胤錫(1729-1791년) 등으로 이어지고,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을 거주하였던 茶山 丁若鏞(1762-1836)에 의해 조선 실학의 큰 맥을 형성하였다.

조선 후기에 장성에서는 또 하나의 저명한 유학자가 나타나는데 蘆沙 奇正鎭(1798-1879)이다. 흔히 장성의 학문을 자랑하는 말로 “長安萬目不如長城一目”이라고 한다. 곧 서울 사람 만 명의 눈이 장성 사람 눈 하나만 못하다는 뜻의 말이다. 이 말은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앓아 한쪽 눈을 잃은 노사 기정진을 자랑하는 말로 비록 노사 기정진의 눈은 하나였지만 서울 사람 만 명이

따를 수 없는 깊은 학문을 가졌다는 자부에서 나온 말이다.

기묘사화 이후 광주와 장성으로 이주해 온 집안 중에 幸州 奇氏가 있다. 행주 기씨의 본 세거지는 경기도 고양군 덕양이다. 그러나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 때 服齋 奇遵(1492-1521)이 화를 입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집안에 불어닥친 사화의 난을 피하여 기존의 둘째 형과 넷째 형이 장성과 광주로 내려온다. 기존의 둘째형이었던 遠(1481-1522)은 장성 황룡의 아곡에 자리를 잡고, 넷째 형인 進(1487-1555)은 광주 광산 임곡에 자리잡은 것이다. 이들 행주 기씨의 호남 이거는 호남 유학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 된다. 광주에 자리잡은 넷째 기진의 둘째 아들이 조선 전기의 저명한 유학자인 高峰 奇大升(1527-1572)이고, 장성에 자리잡은 둘째 기원의 12세손이 조선 후기 3대 유학자 중의 하나인 蘆沙 奇正鎭(1798-1879)이기 때문이다.

노사의 할아버지는 누대로 살아오던 장성 하남에서의 생활이 어렵자 장성과 인접한 淳昌군 福興면 九水洞으로 옮겨가 살았다. 노사는 1798년(正祖 22)전북 순창군 福興面 九水洞에서 태어났다. 노사는 4세 때 말을 배우면서 이미 문자를 알았다고 한다. 노사는 특별히 사숙하는 스승이 없이 조용한 방이나 山房에서 두문불출하며 경서를 책상 위에 쌓아 놓고 단정히 앉아 소리 내지 않고 읊거나 또는 마당을 배회하거나 또는 눈을 감고 종일토록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는 등 혼자서 학문을 궁구하고 깨쳤다.

18세 때 부친상과 모친상을 동시에 당한 기정진은 부친의 유언에 따라 장성 하남으로 이사하였고 문수사 등에 머물면서 공부를 계속하였다. 그는 34세 때 부친의 유지대로 과거에 응시하여 사미시에 장원으로 뽑혔고 이후 거듭 천거되었으나 관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노사는 저명한 스승에게 사사하지도 않았고 퇴계학과니 율곡학과니 하는 학파적 연원에 속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의 즐기찬 학문적 연찬과 체득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상을 체계화시키게 된다. 그것이 이른바 노사의

11) 홍석주 『陽谷集』 서문

理一分殊의 唯理論이다. 노사가 주창한 理一分殊의 唯理論은 퇴계와 율곡 이후 조선조 성리학에서 300여년을 지속해 오던 主理와 主氣의 논쟁을 극복하고 그때까지 양분되어 있던 성리학을 하나로 체계화시켰다.

노사는 순창에서 장성으로 이거한 이후 필암서원 부근에서 오랫동안 강학하다가 1853년(56세)때 장성 珍原面 高山里 下沙마을로 이사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만년을 보냈다. 또한 자신의 호를 ‘蘆嶺 산줄기 下沙에서 사는 사람’이라 하여 蘆沙라 하였다. 노사는 81세 때 澹對軒이란 精舍를 건립하여 제자들의 강학 장소를 삼았다. 澹對軒은 노사 사후에 다시 重建되어 1927년에 高山書院으로 개칭되었다. 『蘆沙先生淵源錄』 「先生門人編」을 보면¹²⁾ 노사로부터 직접 훈도를 받은 제자들은 모두 59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 노사가 거주하던 장성 인근의 전라남도 지역과 순창과 임실 등의 전라북도 지역, 그리고 경상도 산청, 삼가, 초계, 진주, 함양, 하동 등에까지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사가 1879년 12월 29일에 82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服을 입은 문인들이 1백여 명에 달하였으며, 노사의 直傳弟子와 再傳弟子와 三傳弟子까지 합하면 노사의 문인 수는 4,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¹³⁾

이들 문인들에 의해 형성된 蘆沙學派(奇正鎭)는 華西학과(李恒老), 毅堂학과(朴世和), 淵齋학과(宋秉濬), 艮齋학과(田愚), 定齋학과(金興洛), 寒洲학과(朴震相), 四末軒학과(張福樞), 性齋학과(許薰) 등과 함께 근대 유학의 한 유파를 개창하였다.¹⁴⁾ 노사의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장성 진원면에 있는 고산서원에 기정진과 함께 배향된 鄭載圭(1843-1911), 趙性家(1824-1904), 金祿休(1827-1899), 曁毅坤(1832-1893), 李最善(1825-1883), 奇宇萬(1846-

1916), 金錫龜(1835-1883), 鄭義林(1845-1910) 등이 있다.

노사가 스스로 체득한 理一分殊의 唯理論으로 우리나라 성리학의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노사의 학통을 잇고자 하는 수많은 문인들을 길러 내어 노사학파라는 학파를 열게 되었던 것들로 인하여 노사는 ‘조선 성리학의 6대가’ 또는 ‘근세 유학의 3대가’로 평가되고 있다.¹⁵⁾

3. 長城 地域의 漢文學 活動

3.1 近代 以前 장성 지역의 한문학 활동

학문적 성숙 못지 않게 조선 전기는 호남 문학의 전성기였다. 士禍로 인하여 유배되어 내려오거나 정쟁을 피하여 향리로 내려오거나 치사한 후에 향리로 내려온 저명한 학자들에게는 가르침을 청하는 제자들이 모여들어 학문적 전성기를 이루는 한편, 이들을 중심으로 한 문학 활동 또한 활발하였다. 이들 학자들은 거주지 주변의 경치 좋은 곳에 정자나 초당을 짓고 주변의 문사들과 왕래하면서 학문을 논하거나 문예를 즐겼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호남의 각 지역에서는 시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사활동들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조선 전기의 호남 문단의 모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정경이었을 것이다.

15) 玄相允,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77 (6판), 368쪽. : 奇正鎭 : 近世 儒學의 中心이요 또 近世 儒學을 代表할 만한 學者는 三人이 있으니 曰 奇蘆沙, 李華西, 李寒洲 三人이다. 그 中의 蘆沙와 華西는 別로 傳受한 淵源도 없이 다 各各 獨力으로 平地에서 屈起한 篤學者들이다. 그리고 그런 中에도 特別히 蘆沙는 觀察이 非凡하고 研究가 篤實하여 花潭, 退溪, 栗谷, 寒洲, 鹿門으로 더불어 理學의 六大家라고 指稱된다...

12) 『蘆沙先生全集』附 答問類編, 「淵源錄 先生門人編, 諸家門人編」-기호중선생 소장본.

13) 고영진, 「노사학파의 학통과 사상적 특성」, 『문학』 제11호, 장성문화원, 2000, 63쪽.

14) 안진오, 한국 근대 유학과 호남성리학, 문학 제11호, 장성문화원, 2000, 47쪽.

공(尹衢)은 被謫될 때 겨우 26세였다. 스스로 고향에 돌아와서 榮進할 뜻을 버리고 山水에 遨遊하며 吟咏으로 自適하였다. 崔山斗, 柳成春 등은 물론 林億齡, 申潛, 朴祥 등 여러 선생들과 서로 노닐며, 그로부터 함께 詩社會의 모임을 갖고 花辰雪朝 등 佳辰에 즈음하여 편지로 부르고 말을 나란히 하고 모이되, 미치지 못한 자에게는 大白의 罰酒를 내리고, 혹은 시를 지어 희롱하였는데 이렇게 함이 수십 년이 되었다.

이 기록으로 보면 당시에 호남으로 유배되어 왔던 학자들이나 호남의 신진 학자들이 어떻게 교류하며 시사회를 갖었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李睟光의 『芝蜂類說』에서도 당시의 호남 문학의 부흥에 주목하여 “근대 시인은 호남에서 많이 배출되었는데 訥齋 朴祥, 石川 林億齡, 錦湖 林亨秀와 思菴 朴淳, 孤竹 崔慶昌 玉峰 白光勳, 그리고 白湖 林悌 등 제가들이 그 예라”고 하였다. 이수광이 거론한 호남 10걸은 조선 전기 호남시단을 주도하는 인물들이었고 호남의 각 지역의 시사활동 중에서도 광주와 담양, 장성, 나주를 중심으로 한 시사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조선 전기 호남문학의 문을 연 사람은 成倪, 申光漢, 黃廷彧과 함께 徐居正 이후의 4대가로 알려진 訥齋 朴祥(1474-1530)이다. 박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호남 문학은 박상의 문인이었던 송순과 임억령, 임형수, 김인후로 이어지고 박순과 백광훈, 최경창, 임제, 양응정, 기대승, 고경명, 김성원, 정철, 임제, 백광훈, 김덕령 등으로 계승된다. 이들은 서로간의 누정을 왕래하면서 시단활동을 하였는데 광주, 담양, 장성 등에 산재해 있던 이들 누정들은 20-70 리 정도의 거리에 산재해 있어 사사와 교유의 교분을 다졌다.

하서는 호남시단의 중심에서 활약하였다. 하서는 수학할 때, 최산두의 문하에서는 유성춘, 윤구, 윤형수, 김약목 등을 만났으며, 송순의 문하에서는 신광환, 임억령, 성수침, 나세찬, 임형수, 양산보, 기대승, 박순 등을 만났다. 송순은 호남문학의 개창자였던 박상의 문하이며 하서는 박상과 송순에게서 배웠으니 하서의 문학적 위상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흔히 하서를 칭할 때 도덕과 의리, 문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하는데 그만큼 하서의 문학은 하서의 학문적 업적과 비견될 만큼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서가 본격적인 학문과 시작생활에 임한 것은 처사 후 향리에서의 정신적 방황을 끝내고 순창의 점암촌을 이주하여서 訓蒙齋를 짓고 어버이를 모시고 우거할 때부터이다. 그때부터 하서는 학문을 궁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시문에 열중하였다. 하서의 문학적 특징은 당대의 석학들과의 학문에 대한 치열한 논쟁 등에서 보여준 철저한 도학자의 모습처럼 예의와 법도를 준수하며 유교의 전통적 문학관을 따르지만 술을 좋아하고 관대하였던 성품과 같이 자유롭고 호탕한 기상이 있다. 하서가 남긴 시는 약 1,600여수에 달하며 시조 3수를 남기고 있음이 이채롭다.

3.2 近代 以後 長城 地域의 漢文學 活動

3.2.1. 長城 春秋契

지금까지 조사 수집된 자료들에 의하면, 근대 장성지역에서 행해진 가장 오래된 시회는 長城 春秋契로 보여 진다. 필자가 수집한 長城 春秋契案에 따르면 장성 춘추계는 1954년(甲午) 11월 21일에 창설되었다.

계의 명칭은 長城 春秋契라고 하였는데 이는 매년 春 3월과 秋 9월에 회합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문화의 발전은 그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른 면이 있으나 春秋의 正義는 萬古에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¹⁶⁾

16) 장성춘추계안 : 金黃中 序

...名以春秋契하니 蓋取諸每以春秋九會合之意也요 亦竊思之컨댄 文化發展은 隨其時代變遷而非無相異之端이나 春秋正義는 萬古不易之道也니 亦有意味存焉이라 今以結

장성춘추계의 창립 취지는 계의 결성을 처음 발기한 조성원의 서¹⁷⁾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공자의 常經通誼를 모범으로 삼아 새롭게 쏟아져 들어오는 서양 문물에 빠져 들어가는 당시의 세태를 儒道로써 바로잡고 斥邪衛正과 去惡趨善의 方法과 要諦를 함께 강습하면서 서로 돕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즉, 장성 춘추계는 단순하게 春秋로 詩酒風雅하는 친목모임이 아니라 시대를 바로잡고 사람들을 교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계이다. 그러므로 춘추로 모여 講信하는 것이 춘추계의 가장 큰 일ियो 이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이 장성 춘추계의 본 뜻이었다.¹⁸⁾ 그러므로 장성 춘추계에서는 講會 때마다 藍田呂氏之鄉約과 白鹿洞之學規를 익히고 향약의 4대 條目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에 힘써 서로 징계하고 권장하는 것으로 풍속을 교화하고자 하였다.¹⁹⁾ 발기 당시의 이러한 취지들은 계속

金蘭之交契하고 守其如秋菊傲霜不屈之節操...

17) 장성춘추계안: 趙聖元 序

民之生이 有三에 父生君食師教與焉이요 人之倫이 有五에 親義別序信이 居焉하니 常經通誼는 與天地로 相終始者也라 然이나 挽近以來로 廉隅之喪과 禮俗之壞가 日甚一日하야 邪說이 肆行에 駸駸然有胥溺之歎矣라 斥邪衛正之方은 莫先於立紀요 去惡趨善之要는 莫緊乎誘掖이라 因時取宜하야 挽回世教之意로 俾圖日新之化則其揖讓周旋之儀는 縱未必中節於初筵이나 仁義漸磨之俗은 詎可無裨新於來頭哉아 觀於鄉而知王道之易謂者는 禮讓之風이 自鄉而國而達諸天下者矣라 時有古今이나 道無古今이라 本契創立趣旨도 亦關於風教之一端則 惟願僉君子는 各自勉勵하시와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로 其於懲勸成俗之方이 不無少補云 庚子三月 上澣 南石趙聖元 謹序

18) ① 장성춘추계안: 朴均恒 序

...今春而講信하고 又秋而講信하야 修講得乎日新又日新之工이 是契之本義也라...

② 장성춘추계안 : 金黃中 序

...藍田呂氏之鄉約과 白鹿洞之學規도 可倣矣오 亦時或彷彿蘭亭契之清趣也리라

③ 장성춘추계안 : 邊東曄 序

...嗟乎 綱紀는 烏號가 反張하고 所樹風聲은 瓠巴絃緩이라 僉位君子가 慨然齊起하 사 人恒德業을 講勸於茫茫하고 眚災過誤를 矩醒於昏醉하야 棘籟은 還乎坦道하고 靡風은 起爲光明하리니 吾輩前頭는 將有砥柱之依歸하리라...

19) 장성춘추계안

① 金黃中 序: 今以結金蘭之交契하고 守其如秋菊傲霜不屈之節操而講磨不已則 藍田呂氏之鄉約과 白鹿洞之學規도 可倣矣오 亦時或彷彿蘭亭契之清趣也리라

이어져서 후에 장성 춘추계의 목적이 되었으며 더 확장되어 춘추계 6대 要綱의 근본이 되었다.²⁰⁾ 또, 이러한 미풍교화의 목적 외에 회원간의 친목모도 계의 목적 중의 하나였고 春秋로 경치좋은 곳을 찾아가며 風浴之趣와 詠觴之情을 만끽하는 것도 계의 목적 중의 하나였다. 여기에서 장성춘추계의 시회의 성격을 찾을 수 있다.²¹⁾

장성 춘추계는 계원의 자격을 장성군 일원에 사는 자로 한정하였고 사무소 역시 장성군 장성읍에 두고 있었다.²²⁾ 발기인 7인으로 시작된 장성 춘추계의 창립 당시의 계원 수는 알 수 없다.²³⁾ 그러나 그로부터 6년 뒤인 1960년에 발간된 춘추계안의 계원 수는 101명에 달한다. 계안에는 계원 座目이라 하여 姓名, 雅號, 本貫, 生年月日, 住所 등이 生年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趙聖元 序 : ...本契創立趣旨도 亦關於風教之一端則 惟願僉君子는 各自勉勵하시와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로 其於懲勸成俗之方이 不無少補云

20) 장성춘추계안 :

- ① 規約 第四條 本契의 目的은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과 相互 親睦을 圖謀키로 한다.
- ② 春秋契 六大 要綱 : 一 德業相勸 (좋은 일을 서로 권하는 것)
 二 過失相規 (잘못을 서로 바로 잡는 것)
 三 禮俗相交 (예의풍속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四 患難相恤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주는 것)
 五 產業相助 (산업을 서로 도우는 것)
 六 保健相助 (위생을 서로 장려하는 것)

21) 장성춘추계안 :

- ① 朴均恒 序: 況花柳前川萬和方暢之春과 杞菊東岡晚節可愛之秋에 風浴之趣와 詠觴之情은 莫不與時俱適이라...
- ② 金黃中 序: 今以結金蘭之交契하고 守其如秋菊傲霜不屈之節操
- ③ 春秋契 發起文: 若其凡例則 參倣藍田鹿洞之規約而 冠婚喪祭皆有功助하고 春風 秋雨之節에 一次相聚消暢而 寔美事也오 寔盛事也라

22) 장성춘추계안: 春秋契 規約

第二條: 本契는 長城郡 一圓의 志氣相合한 人士로서 構成한다.

第三條: 本契의 事務所는 長城郡 長城邑에 置하되 隨時 變更할 수 있다.

23) 장성춘추계안: 발기인

金黃中 朴均恒 趙聖元 金喆會 奉萬沂 奇健度 羅燾千

장성춘추계의 특이 사항은 계의 목적이 분명히 당시의 세태를 교화시키고 미풍양속을 부흥시키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친목의 차원이 아니라 남전여씨 향약과 주자의 백록동 학규를 그 모범으로 삼고 따르고자 하는 강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斥邪衛正을 내세우지만 무조건적인 쇄국이 아닌 邪說을 마고 바른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다른 지역의 시회들에서는 볼 수 없는 장성 지역 시회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성 지역의 유학의 특징과 계승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장성 춘추계에 관해서는 1960년에 발간된 장성춘추계안 이외의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장성춘추계가 언제까지 활동하였으며 규모가 어떠한지 시회의 모습이나 작품 등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창립당시의 계원들의 수가 101명에 이르고 계원들의 나이가 70대에서 30대까지 분포되어 있고 50-60대가 중심이었던 것을 본다면 적어도 계는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4) 장성춘추계안 :

- ① 朴均恒 序:朋友之有信는 五倫之一也요 鄉里之有約은 古有是例라 晦翁鹿洞之規와 呂氏藍田之約이是也요 我東退溪栗谷兩先生이 繼行於禮安巴州之地라 亦非 是耶아 其規模가 廣大하고 條約이 詳密하야 所施者博하고 所及者廣하야 所以化民成俗者蓋亦由是道焉이라
- ② 金黃中 序:不已則藍田呂氏之鄉約과 白鹿洞之學規도 可做矣오 亦時或彷彿蘭亭契之情趣也리라..
- ③ 춘추계 발기문:朋友之有契와 鄉里之有約은 自古凡例라 鄉約은 肇自呂藍田으로 創立하야 德業相勸하며 禮俗相交하며 患難相恤하며 過失相規가 其條目也라 朱子鹿洞之規는 亦做藍田之約야 損益所施者博하고 所及者廣이라 三代之所以化民成俗者亦不外是道焉이라
- ④ 邊東曄 서:今吾郡多士之春秋契를 若以消遙遊春秋면 似無所輕重이나 必爲白鹿洞既講之春秋면 世豈無樂從耶아

3.2.2 風詠契

필자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장성 춘추계 다음으로 결성된 시회는 風詠契이다.

풍영계는 1965년(乙巳) 4월 10일에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²⁵⁾ 그러나 정식으로 결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모임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 같다. 필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해방 직후인 1950년(庚寅)에 결성되었다고 한다.²⁶⁾ 계의 명칭은 風詠契인데²⁷⁾ 그 뜻은 사람의 욕심의 오염을 씻어버리고 天理의 流行을 영탄한다는 뜻이다. ²⁸⁾

풍영계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결성되었다. 먼저 풍영계는 처음에 결성된 장소가 澹對軒이라는 곳이었고, 계의 사무소도 澹對軒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담대현은 근세 3대 유학자로 칭해지며 花潭, 退溪, 栗谷, 寒洲,

25) 『풍영계시집』, 奇浩仲 先生 소장본

① 呂昌鉉, 風詠契序:去甲辰陽月十五日奇斯文莊軒壽筵也 文士雲集爲之說此事甚悉皆不約而同以今四月十日而結成於澹對軒時復演繹於光之石泉寓庄..

② 金相晉, 風詠契詩稿序:前十年乙巳夏吾輩若干人創立此契..

26) ① 기호중 면담:58년 전인 1950년에 전국 최초로 조직된 시회이다....

② 呂昌鉉, 風詠契序:余嘗嘗與同志設契團合月講歲討參聽斯文事久矣..

27) ① 風詠契案 規約:契名以風詠..

② 呂昌鉉, 風詠契序:時復演繹於光之石泉寓庄其曰風詠..

③ 金相晉, 風詠契詩稿序:名以風詠者..

28) ① 風詠契案 規約:契名以風詠爲滌去人欲之汚染詠歎天理之流行 非憚繩檢而樂放縱以至於猖狂自恣玩物喪志也 入案者須辦得公私義利之分操存省察務從規約事..

② 金相晉, 風詠契詩稿序:名以風詠者其意有在寔難輕論 然抑其名豈非原於風乎舞雩詠而歸之語耶 夫子吾與點也之嘆蓋深許曾點之學有以見 夫人欲盡處天理流行隨處充滿無少欠闕也 仰想其胸次也氣象也悠然直與天地萬物上下同流則生乎數千載之下而欲究明其意於數千載之上者殆若管窺蠡測 然爲吾末學者 苟不規規於事爲之末而卽其所居之位樂 其日用之常則曾氏舍瑟之對安知不出於吾輩之口也歟 不然執滯詞章之末句語之工而 徒然徵於春風秋月之間則其於顧名思義之道不亦左乎...

29) 風詠契案 規約:

一. 本契置長城郡珍原面珍原里澹對軒事

鹿門과 함께 6대 유학자로 칭송되는 蘆沙 奇正鎭³⁰⁾이 말년에 거주하면서 제자들에게 강학하던 장소이다. 그러므로 풍영계는 노사 기정진의 문인들이 결성한 시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풍영계는 단순한 친목도모나 춘추의 시회를 위해 모인 모임이 아니었고 노사의 학문을 강학하고 전수하는 講會의 모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풍영계 창립 당시의 계원 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창립 시회에 200명의 시가 실린 것을 보면 200명이 넘는 수가 모였을 것이다.³¹⁾ 또한 1975년 9월에 발간된 詩稿에는 291명의 계원명단이 수록되어 있고³²⁾ 1992년에 발간된 4집에는 163명이³³⁾, 2003년 봄에 발간된 시고에는 97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³⁴⁾ 또한 2006년(丙戌)에 작성한 풍영계안에는 100명의 계원명단이 수록되어 있고, 2007년(丁亥)에 작성된 풍영계안에는 105명의 계원이 가입되어 있다.³⁵⁾ 2008년 현재 풍영계 회원 수는 150여명 정도 되는데 가을 강회 때는 95명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30여명이 시회에 참여하였다. 또 시회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은 詩軸만 보내기도 하였다. 면담에 의하면 풍영계의 결성 초기에는 1년에 두 번 춘추로 모임 때마다 250여명의 계원들이 모였다고 한다.³⁶⁾ 계원들의 지역분포도는 전남 일원과 전북의 남원, 장수, 고창, 임실 등 장성과 가까운 지역으로 노사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경상도 지역의 노사학파들도 계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지만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만류하였기 때문에 주로 전·남북의 노사학파 문인

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고 한다. ³⁷⁾ 풍영계는 1980년대까지는 매 시회 때마다 200여명이 모이는 성황을 이뤘으나 1980년 이후로 쇠퇴하여 현재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풍영계의 모임 장소로는 노사의 강학 장소이자 후일 노사와 제자들을 배향한 장성 진원의 고산서원에서 주로 모였는데 2008년 가을 시회는 광주 백운동에 있는 노사 기정진의 후손인 기호중의 유당서예원에서 모였다.

풍영계는 매년 삼월 하순과 구월 하순에 2회씩 모이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³⁸⁾ 2008년 가을 현재까지 시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회의 결과로 현재까지 『풍영계 시집』이 5집까지 나와 있다. 제 1집은 『風詠契 詩集』으로 언제 발간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풍영계가 창설될 때(1965)부터 1967년(丁未) 4월까지의 춘추시회의 시들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1967년 가을 무렵에 발간된 것이 아닌가 싶다. 풍영계의 座目에는 202명의 계원들의 인적사항(姓名, 號, 生年, 本貫, 住所 등)이 정리되어 있다. 각 시회 때의 시들은 처음 창설운은 200명이 참여하였고 매 시회마다 100여명 내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제 2집은 『風詠契 詩稿 序』인데 1975년(乙卯) 9월에 발간되었다. 제 2집의 계원 좌목에는 291명의 계원 명단이 실려 있어 당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시회의 경비는 주로 계원들이 자신들의 수연 축하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1975년(乙卯) 20차 춘계 시회 때는 전라남도지사가 참석하여 축하하고 특찬금을 후원받는 등 사회에서의 관심도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3집은 필자가 수집하지 못하였다. 제 4집은 『風詠契 詩稿』 第四輯으로 1992년(壬申) 단오절에 발간되었다. 4집의 체제도 2집과 같은데 특기할 사항으로는 「仙化契員錄」이라 하여 세상을 떠난 149명의 계원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뒤의 계원록에는 163

一 本契의 事務所는 長城郡珍原面高山里澹對軒內에置한다

30) 玄相九,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77(6판), 368쪽.

裴宗鎬, 『韓國儒學史』, 연세대학교출판부, 1974(1997-9판), 130쪽.

31) 『風詠契 詩集』

32) 『風詠契詩稿 序』, 1975년(乙卯) 九月 간행.

33) 『風詠契詩稿』 第四輯, 1992년(壬申) 夏 간행.

34) 『風詠契詩稿』 第五輯, 2003년(癸未) 5월 간행.

35) 『風詠契案』 2006년(丙戌), 2007년(丁亥) 각각 간행.

36) 기호중 선생 면담

37) 기호중 선생 면담

38) 風詠契 詩集, 風詠契案 規約:

一. 本契講會三月下旬九月下旬擇定而修于澹對臨時講會從便宜臨時召集事

명의 계원 명단을 인적사항(姓名, 生年, 雅號, 本貫, 住所)과 함께 수록하고 1981년(辛酉) 10월부터 -1992년(壬申) 4월까지의 詩稿를 수록하였다. 제5집은 『風詠契詩稿』 第五輯으로 2003년(癸未) 청명절에 발간되었는데 4집과 같이 239명의 仙化契員錄과 97명의 계원록을 실고 1992년(壬申) 가을부터 2003년(癸未) 4월까지의 시고가 실려 있다.

풍영계의 특징으로는 결성의 주목적이 노사의 학문을 강회하고 時俗의 퇴폐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시회와 달리 풍영계는 시회가 열릴 때마다 먼저 서로 간에 인사를 주고받는 相揖禮를 한 다음에 朱子 白鹿洞 學規와 藍田呂氏 鄉約을 암송하거나 읽고 講을 시작하기로 규정하였다.³⁹⁾ 시회 때의 이러한 講習의 절차는 2008년 가을 시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2008년 가을 시회의 식순은 국민의례와 蘆沙 선생께 대한 묵념이 있는 후 회원들끼리 相揖禮가 있었다. 이후 계원 중의 한 사람이 朱子의 白鹿洞 學規와 藍田呂氏 鄉約을 암송하였다.⁴⁰⁾ 講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 회원들 모두가 돌아가며 자신이 외운 경전의 글귀들을 외었는데, 회원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눈을 감고 암송하였고 계의 총무는 각 회원들이 암송한 내용의 출처를 밝혀 적었다.⁴¹⁾

39) 風詠契 詩集, 『風詠契案 規約』
 一. 講會時先行相揖禮讀朱子白鹿洞規藍田呂氏鄉約 訖嚴開講筵拱手端坐 不得傾倚回顧放言恣笑以失容儀...

40) 朱子 白鹿洞 學規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 五教之目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辯之 篤行之 右 爲學之序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 右 修身之要
 正其誼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右 處事之要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 接物之要
 藍田 呂氏 鄉約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41) 2008년 추계 풍영계 시회

3.2.3 淡水契

장성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시회 중에 淡水契가 있다.

담수계는 1979년(己未) 3월 1일에 결성되었다.⁴²⁾ 그러나 계가 정식으로 결성되지는 않았지만 상호간에 교류하면서 詩交를 맺어온 것은 꽤 오래되었던 것 같다.⁴³⁾ 즉, 담수계의 중심인물인 邊時淵이 장성 매화동에 梅花莊이라는 주거를 마련하면서부터 이곳은 장성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의 집합처가 되었다.

계의 명칭은 淡水契이다.⁴⁴⁾ 계의 이름을 淡水라고 한 것은 '그 넓고 깊고 맑음이 물과 같기를 바라는 뜻에서 취한 것이며 맑음을 물에서 취한 즉 스스로 아침하는 행실은 없어지고 오직 정직하고 성실함으로만 서로 허여한다면 가히 오래도록 공경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하게 부끄럽지 않은 담수계원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와 옛 글에 이르기를 군자의 사림은 담담하기가 물과 같아야 한다는 데서 인연하여 붙인 것이라고 하였다.⁴⁵⁾

일시 : 2008(戊子).11.15 오전 10:00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裕堂書藝院
 詩題 : 風詠雅會
 押韻 : 遊·流·樓·秋·留

42) ① 淡水契續誌 序 邊時淵: 歲己未春相與爲謀創設一契...
 ② 淡水契誌 序 李喜鳳: 選鄉內十二同志設契...

43) 淡水契續誌 序 邊時淵: 自余寓梅洞大開文役前後四十年國中名流之過鄙者不勝數鄉隣十數公不期來會文酒風流殆無虛日...
 淡水契續誌 跋 孔在聖: 吾儕生同一世居在同鄉一所尚又同日相追逐於邊汕巖之文花刊所者前後爲數十年余乃發義倡設一契衆皆欣然...

44) ① 淡契續誌 序 邊時淵: 是曰淡水...
 ② 淡水契誌 序 奇老珥: 今淡水契者契也契主於信而信莫切於信友也

45) ① 淡水契續誌 序 邊時淵: 契之云淡水取其汪汪淡如水也 取其淡如水則自無便佞善柔之行而惟以直諒多聞相與 然後可得久敬名實相符不愧爲淡水之契員矣...
 ② 淡水契續誌 跋 孔在聖: 契名云何金耕雲曰古語云君子之交淡淡如水豈非可取耶 因名淡水契...

담수계의 계원의 수는 12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처음 창설할 때부터 담수계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심히 많았으나 1년 12개월의 수를 사용하여 12인으로 한정하여 엄선하였다.⁴⁶⁾ 계원의 자격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나이는 불문하고 같은 고향에서 같은 취미와 文字에 있어서 차등이 없는 자들이 모였다.⁴⁷⁾ 그러나 담수계에 들어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을 떠난 계원들의 자리를 보충하면서 1985년(乙丑) 이후에는 15명의 계원이 續座目에 수록되어 있다. 좌목에는 姓名, 字, 號, 先祖(本貫), 生年月日, 住所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대개 다른 계에서는 기존의 계원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후손으로 승계하게 한다. 그러나 담수계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계원으로 보충하였다. 당시에 담수계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담수계의 본질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데서 나온 조치였을 것이다.

담수계의 창설목적⁴⁸⁾은 儒道를 따르는 儒林들의 모임이지만 講會에 목

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蘭亭之交, 金蘭之交와 같은 사교 친목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담수계는 다른 계들과는 달리 계원들의 생일에 생일을 맞은 계원의 집을 방문하는 등으로 돌아가면서 계를 닦았다. 그리하여 한달에 1번, 많을 때는 2번까지 모임 정도로 잦은 모임을 가졌다.⁴⁹⁾

이러한 잦은 회합을 통하여 시문들이 쌓이자 담수계에서는 1985년(乙丑)에 4년 동안 모아진 작품들을 묶어 계지 1권 발간하였다고 한다.⁵⁰⁾ 그러나 필자는 이 계지는 입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담수계에서는 1992년(壬申)에 다시 『淡水契續誌』를 발간하였다. 『淡水契續誌』의 체제는 淡水契續誌序(邊時淵 壬申 1992년) - 淡水契誌序(李喜鳳, 奇老珥 1985년 乙丑)에 이어 淡水契續誌日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淡水契誌에서 특이한 사항은 계원 12명에 대한 記를 수록하였으며 淡水契原韻과 續韻 그리고 1979년(己未) 3월 14일부터 1983년(癸亥) 7월 20일까지의 시들을 모아 편집하였다.

담수계가 언제까지 활동을 지속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담수계의 중심인물이었던 변시연이 73세 때인 1994년에 담수계의 본거지였던 대화장을 떠나 장성군 북하면 巽龍으로 巽龍亭을 지어 이주하였고 이후 巽龍에서 다시 詩會를 열었다고 한다. 이 시회는 巽龍吟社라고 하였으며 매년 초복날 모임을 가졌고 매 회 평균 70여명의 회원들이 모였다고 한다. 巽龍吟社는 중심인물이었던 변시연이 자리에 놓던 2005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⁵¹⁾

46) ① 淡水契誌序 李喜鳳: 選鄉內十二同志設契...

② 淡水契續誌序 邊時淵: 創契者誰李梧軒喜鳳 高省堂濟杰 金碧農相晉 金春園源益 金耕雲熙中 孔晚悟在聖 奇竹圃老珥 高晚軒敬鎮 邊竹下在健 金省下相敦 邊德湖東鎭 朴柿園三根 而余亦參末竹下早世繼..

③ 淡水契誌序 奇老珥: 吾濟十二人....

④ 淡水契續誌 座目: 以上 十二人用一年十二個月數

⑤ 淡水契續誌 跋 孔在聖: 鄉內士友以入契爲榮願入者甚多 然只取日常追逐亦用一年十二月數也

47) 淡水契續誌序 邊時淵: 蓋諸公雖有齒之先後同居一鄉趣味又同則不可以文字之優劣有所差等也...

48) 淡水契續誌序 邊時淵: 噫香山洛社之社豈皆成德文章之士耶 惟其同心相好而無拍肩執袂親狎爭鬪之事 故傳之無窮而稱之不已者也..

淡水契誌序 奇老珥: 各言其志可擬蘭亭之勝牒事不關年差猶做香山洛社之古會宜兄弟恰似桃園之結義也 推此心而擴充之則親義別序信之理修齊治平之事無不適 然必有克終之義矣 豈非修契之本意耶 交情之篤厚必在於是矣 相與共勉亦以爲來裔講好之資

淡水契誌序 李喜鳳: 蓋人生於世不先不後同並一世爲幸而既並一世而又並一鄉其幸又孰大焉 況處同鄉而志同道同其情義當何如哉 又況我輩年迫暮矣 在世之日豈不同樂講誼也

49) 淡水契誌序 李喜鳳: 每年輪會契員生朝巡盃敘權后各賦一韻而集之爲一局將付割劖也.. 淡水契續誌跋 孔在聖: 每隨各人晷日修契...

50) 淡水契續誌序 邊時淵: 歲己未春相與爲謀創設一契是曰淡水 乙丑冬蒐集四年間所唱酬刊契誌一卷..

淡水契續誌跋 孔在聖: 又有詩乃收四年所作爲此契誌...

51) 2008.11.18(화) 10:00 변시연선생 아들 변동보 선생, 변시연선생 문인인 정근규 선생 면담

3.2.4 觀善會

장성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한문학활동 모임 중에 觀善會가 있다. 觀善會는 1982년 8월 18일 (壬戌 광복 후 38년)에 조직되었다.

觀善會라는 명칭은 相觀而善이라는 의미에서 따온 것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相觀而善⁵²⁾이므로 관선이란 서로 서로 보면서 선을 쌓아간다는 뜻이다.

관선회의 결성의 목적은 노사 기정진의 학술을 講習하는 것이다. 발기문⁵³⁾에 보면 ‘조선조 오백여년에 우리나라에 名賢英碩들이 많이 나왔으나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노사 기정진이었다고 하면서 지금의 세상이 그 때의 세상이 아니어서 西勢東漸에 邪說蠻行이 가득 넘쳐 뒤집어 지러는 때에 사람들은 변화로 달려가고 문물은 夷狄으로 바뀌어가니 노사의 도를 어디로부터 들으며 노사의 학문을 자차 어떻게 듣겠는가. 우리들이 이것을 한탄하니 다만 선생이 살았던 세상은 더욱 유구하여 선생의 학문이 전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라. 무릇 우리 근본이 되는 後學들이 달마다 의자를 나란히 하여 선생의 학문을 강론하고 심오한 이치를 궁구하며 松風梅月に 吟嘯하면서 그 澹泊함을 본받는다면 先生의遺風과 餘韻을 얻게 되고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모임을 발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선회의 결성 목

52) 觀善會 會則 金亨在 緒言: 謹按坎대 易經兌卦의 象에 曰麗澤이 兌也니 君子以하여 朋友講習이라 하였다. 此를 간단히 解釋하면 兩澤이 上下로 相麗하여 互相滋益한 바를 君子가 以하여 朋友가 講習하는 其象이 如此하다는 것이다. 대범 同門曰朋이요, 同志曰友요. 講以習之曰 講習이니 徒講하고 不習하면 實得이 없는 것이요, 徒習하고 不講하면 悟門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天下의 義理를 研究코저하면 반드시 同志의 朋友를 廣求하여 그 所蘊을 研窮하여 未明에서 求明하고 已精에서 益精한 즉 在己한 者가 資乎人이 되고 在人한 者가 資乎己가 되는 것이니 이가 바로 相觀而善이며 本會의 使命이다...

53) 觀善會 會則 發起文: 주 59) 참조.

적은 노사 기정진의 학문을 강론하고 후세에 이어주기 위한 모임이 된다.⁵⁴⁾ 실제로 관선회의 활동을 보면 詩文을 짓는 등의 詩會적인 성격은 없고 매월 월례회로 모여 노사의 학문을 중심으로 사서오경을 강론하는데 현재는 광주 향교에서 每月 第2 土曜日 午後에 강론을 계속하고 있다.⁵⁵⁾

관선회는 회원의 자격을 學文과 德行이 兼備하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한 者로서 한다.⁵⁶⁾고 정하고 있는데 2003년(癸未)의 회원수는 126명에 이르고 있다. 관선회는 詩會적인 성격은 없는 반면, 관선회의 회원들이 대부분 풍영계의 계원으로 활동하여 관선회와 풍영계는 노사학파라는 같은 성격을 가진 講會와 詩會라고 할 수 있다.

3.2.5 筆巖書院主催 全國漢詩白日場大會

장성에서 행해지는 한시 관련 행사로 가장 최근에 시작된 것이 전국 한시 백일장 대회이다.

전국 한시 백일장 대회는 2003년(癸未) 5월에 제 1회 대회가 장성의 筆巖書院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2003년 초에 筆巖書院의 선비들이 한 목소리로 發議하여 한시 백일장을 열기로 논의하였고 장성군수의 특별한 贊助를 얻어서 5월에 개최하였다는 것이다.⁵⁷⁾ 전국한시 백일장을 주최한 필암서원은 河西 金麟厚의 位牌를 모시고 享祀하는 곳으로 高宗 때의 서원 철폐령에도 호남에서 유일하게 철폐되지 않았던 서원이다.

54) 觀善會 會則 第三條 本會는 斯文의 振作과 斯道의 顯彰을 圖謀하고 先次的으로 四書五經을 爲主로 한 古文學 講論과 蘆沙先生의 學術을 研究함을 目的으로 한다.

55) 觀善會 會則 第七條 4) 月例會는 每月 第2 土曜日 午後에 開催한다.(但, 不得已한 事情이 有할 時는 日程을 變更할 수 있다.)

56) 觀善會 會則 第五條

57) 『筆院風雅』, 筆巖書院: 筆院風雅 序, 柳漢相: 吾儕之依歸捨此何往歲癸未之年初筆岩書院之儒論齊發施行漢詩白日場 爲算而得長城宰之特助焉 施行日字癸未青和之節也

필암서원에서는 매달 朔望에 焚香하는 禮를 400여 년 동안 지속해 왔다고 한다.⁵⁸⁾ 광복 후에는 하서를 흠모하는 선비들이 山仰契를 조직하고 약간의 자금으로 筆院祭田을 마련하여 경비를 부담하여 왔다.⁵⁹⁾ 그러다가 2003년 초에 신앙계의 선비들이 모여 그간의 시대 변화에 의해 쇠퇴된 유교를 진작 시키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儒者들을 한자리에 모아 고무하기 위하여 전국한시백일장을 개최하기로 발의하였다. 2003년 5월에 개최된 제1회 백일장 때는 京鄕各地에서 오백여명이나 되는 선비들이 참여하였으며 출품된 시는 삼백여수에 가까웠다고 한다.⁶⁰⁾ 하서를 추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전국한시백일장 대회에 50여명의 선비들이 참여하고 각 지역의 유림들이 방문하여 축하하는 것은 유학을 존중하는 선비들이 아직도 많으며 한시를 짓는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학을 존중하고 따르는 선비들이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⁶¹⁾ 지금도 각 지역에서 사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고 한학을 공부하고 한시를 짓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필암서원에서 주최한 全國漢詩白日場大會는 河西 金麟厚를 추모하기 위한 사회이다.⁶²⁾ 그러므로 매년 백일장의 詩題는 “追慕河西金先生”(1회) “瞻

58) 『筆院風雅』, 筆巖書院: 『筆院風雅 序』, 柳漢相: 嗚呼筆岩書院東國先正河西金先生安享之所也 不撓于戊辰撤廢之令而每月朔望不廢焚香之禮 每年春秋之中丁前期湖南之多士駿奔于清節堂將釋菜以尊慕之相揖禮畢而講經賦詩翌朝將事禮儀之節次文物之彬蔚自有古規而不墜斯文之聲者四百有餘年于茲矣 一線儒脉在此而反其不人不國之弊亦在斯無疑焉 吾儕之依歸捨此何往歲癸未之初筆岩書院之儒論齊發施行漢詩白日場爲算而得長城宰之特助焉 施行日字癸未青和之節也 其間期成周旋甚多窘難而始終擔責者執行爲員長晚巖金鎮雄也別有司素巖金容淑之賢勞頗多焉 當日京鄕之多士參會于白日場者殆至五百餘亦詩之集近三百餘首而皆爲字挾風霜篇連月露甚可觀焉 以斯界大家爲考試而選甲乙當日施賞焉

59) 『筆院風雅』 第五輯, 『筆院風雅 序』, 南大熙: 往昔光復後道內多士嚮慕先生之風者設山仰契以若干資備筆院祭田梁盛克備...

60) 『筆院風雅』, 筆巖書院: 『筆院風雅 序』, 柳漢相: 참조.

61) 필암서원 『산양회보』 제10호, 2007.12. 발간: 박종달 인사말 2쪽.

62) 『筆院風雅』 第一輯, 要綱:

一. 趣旨: 我東 十八先正이시며 百世宗師이신 河西 金先生을 追慕하는 漢詩白日場을

拜筆巖書院(2회) “清節堂雅會”(3회) “回憶卯山慟哭”(4회) “仰拜祐東祠”(5회) “奉審筆巖書院”(6회) 등으로 하서와 필암서원에 관계되는 詩題들로 출제되고 있다. 필암서원에서는 전국한시 백일장대회에 출품된 시들을 모아 『筆院風雅』라는 시집을 내고 있는데 2008년까지 5권의 시집이 나왔다.

『筆院風雅』 제2집의 祝辭 부분에 이런 글이 실려 있다. “오늘의 現實을 돌아볼 때 西歐 物質 風潮가 世界를 휩쓴 가운데 우리 東洋의 倫理文化는 斷脈의 危機에 놓이게 되었으니 우리 士林들이 어떻게 慨歎을 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民主化와 世界化 時代라 할지라도 自國의 文化를 지키지 못하고 外來의 風潮 속에 휘말리고 만다면 이것이야말로 主權을 喪失한 국가요, 國籍을 저버리는 國民으로서 眞正한 世界化에 寄與하지 못할 것입니다. 眞正한 民主化와 世界化는 劃一의인 것이 아니라 多元化로서 東西文明이 相互 調和를 이루는 데에서 可能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는 先生의 學問을 繼承 發展하여 斯文振作에 寄與하고 世界化에 同參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⁶³⁾

한편, 필암서원 주최 전국 한시 백일장 대회를 발기하였던 山仰契는 광복 이후에 결성되어 활동하여 오다가 2002년 8월에 230여명의 유림들이 모여 山仰會로 재발족하였고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2008년 7월까지 『山仰會報』 11호를 발간하였다.

由緒 깊은 이곳 長城 筆巖書院에서 開催하여 河西先生의 偉德을 追慕闡養함으로써 衰退해 가는 斯文을 振作하고 우리 民族 固有의 倫理 道德을 涵養하고 우리의 悠久한 傳統文化인 漢詩를 繼承 發展시키고져 全國의 漢詩 同好 諸賢의 積極의인 參與下에 全國 漢詩白日場을 다음 要綱에 依據하여 開催코저 하오니 많은 參與와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筆院風雅』 第二輯, 朴鐘達: 祝辭 참조.

4. 결 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근대 이후에 장성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문학 활동에 대하여 조사 고찰하였다. 그 결과 근대 이후의 장성지역의 한문학 활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1. 장성 지역은 호남 유학의 중심지였다. 장성은 지리적으로 호남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경제와 행정, 문화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조선 조 이후 이 지역은 하서 김인후와 노사 기정진이라는 걸출한 학자들을 배출하면서 호남 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2. 장성 지역은 호남 문학의 중심지였다. 근대 이전 호남 문학은 주로 광주 · 나주 · 장성 · 담양을 중심으로 꽃피웠고, 그 중심에는 하서 김인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근대 이후 장성 지역의 한문학활동은 1950년대 이후에 많이 시작되었으며 長城春秋契(1954년), 風詠契(1965년), 淡水契(1979년), 觀善會(1982년), 筆巖書院主催 全國漢詩白日場大會(2003년)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風詠契와 觀善會, 筆巖書院主催 全國漢詩白日場大會(2003년)는 지금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3. 장성 지역의 詩社들의 결성 목적은 단순한 詩會가 아니라 道學을 강습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 많았다. 이는 다른 지역 詩社들의 결성 목적과는 다르게 강하게 드러나는 장성지역 詩社들의 특징이었다. 이는 장성이 예로부터 儒風이 짙었던 곳인 만큼 지금에 이르기까지 儒道를 존중하고 따르고자 하는 講會적인 성격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장성 지역의 시회들은 그 규모면이나 사회적인 영향력과 지속성 등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고 강하였다고 보여 진다. 이것 역시 장성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고찰로는 장성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시사활동의 일부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더 많은 자료를 보강하고 자료들을 면밀

히 살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觀善會 會則, 단기 4336(2003) 11.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 『光州歷史』, 1998.
 金鐘坤, 『노사학파의 형성과 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정호, 『전남의 옛터산책』, 향토문화진흥원, 1995.
 노사선생기념사업회편, 『노사선생전집』, 고산서원, 1983.
 『淡水契續誌』 - 손룡정사 변동보선생 기증본.
 『문학』, 장성문화원, -17집까지. 장성문화원 간행,
 배중호, 『한국유학사』, 연세대출판부, 1974(1997- 9판).
 이병직, 『장성의 맥』, 장성향토사연구소.
 이증환, 『택리지』, 평화출판사, 2005.
 『長城春秋契案』, 변동보 선생 소장본.
 제 1회 영호남 학술교류 심포지엄 『근대 유학의 영호남 교류와 효당 김문옥』,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제1회 추모 하서 김선생 전국한시 백일장대회 종합 평가 및 결산보고서,
 2003.5.28.
 제1회 하서김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 2003. 5. 28.
 『風詠契詩稿』 1,2, 4,5집 - 유당 소장본.
 『풍영계안』 병술 4월 -유당선생 기증본
 『풍영계안』 정해 6월 - 유당선생 기증본
 필암서원 『산양회보』 10,11호 - 필암서원 비치본
 『筆院風雅』 1-5집, 필암서원 기증본.
 황병성, 『산과 물이 어울려 스스로 하늘을 이룬 장성』, 향토문화 제 1집 장성
 편-창문각, 1999.
 현상윤, 『조선유학사』, 민중서관, 1977 (6판).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literature activity written
by Korean-chinese letter in Jang-sung after
modern age**

- focus on the poetry party -

Chang, Sun-hee

This study is the research into the literature activity written by Korean-chinese letter in Jang-sung

Because Jang-sung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Honam, this city plays a key role of economy, administration and culture in the Honam

Before modern age, Jang-sung acted the crucial part of Confucianism and literature in the Honam.

After modern age, many literature activities written by Korean-chinese letter had been conducted in Jang-sung. for example, Jang-sung chunchu meeting(1954), pungyoung meeting(1965), damsu meeting(1979), Gwansun meeting(1982) and the poetry contest(2003)

The organization object of poetry parts in Jang-sung is not only the study of poetry ,but also teaching and learning Confucianism. this is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poetry part in Jang-sung

key words : after modern age, Jang-sung, the literature activity written by Korean-chinese letter, the poetry party